도시 전체를 교육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 소개인제대학교(총장 전민현)는 29일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서 김해시 학교운영위원을 대상으로글로컬대학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날 설명회에서 인제대는 '올시티캠퍼스' 모델을 소개하며 학교와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교육 및 지원 시설을 통해 도시 전체를 어떻게 하나의 교육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설명했다.인제대는 지난해 '올시티캠퍼스'(All-City Campus) 모델을 성공적으로 실현했으며, 교육적 활동을 도시 전체로 확장하는 혁신적인 접근을 이어가고 있다. 허브캠퍼스는 학생과 시민을 위한 공용교육시설, 개방형 지원시설 등으로 구성됐으며 김해인재양성재단 본부도 이곳에 위치해 인제대는 물론 가야대, 김해대 등 3개 사립대와 김해시의 혁신역량이 집중되고 있다.학교운영위원들은 이러한 인제대의 추진 역량을 어떻게 학교 교육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인제대는 학교운영위원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글로컬대학 최종 선정을 위한 새로운 논의의 기회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인제대는 지난달 교육부가 발표한 2024년 글로컬 사업 예비지정 20개 대학에 포함됐다. 전민현 총장은 “대학이 지역사회와 실질적인 공생관계를 형성하는 국내 첫 모델인 ‘올시티캠퍼스’가 순항할 수 있도록 글로컬 사업의 최종 선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